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 성차를 중심으로

## Adolescent Perspective o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s, Family Strengths and Personal Psychological Well-Being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조 한 숙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문 혁 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h. D. Candidate : Hansuk Cho*

Departmen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Hyukjun Moo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s, family strengths, and psychological well-beings as perceived by children. In total, 529 6th graders from Seoul and Buchon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awareness of psychological well-beings but not in perception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s and family strengths. Secondly, the children's awarenes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s and family strengths were correlated with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s the more children were aware of their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s,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be aware of their family strength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s. Finally, children's awareness of family strengths had remarkable influenc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심리통제(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가족의 건강성(Family Strengths),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경제적 기본생활에 대한 욕구에서 진일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문화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또한 물질적 풍요와 번영만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득이나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에 대한 복지 향상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외동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증가하고, 비행이나 이탈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문제나 또래관계 등은 과거에 비해 아동에게 더 많은 압력으로 작용하며,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이웃관계 등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약화되어 가고 있다(이소희 외, 1999). 이제는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만족감, 복지감, 안녕감등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백경숙, 변미희, 2002). 이에 따라 복지상태 측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객관적 환경이나 상태에 대한 측정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주목하는 복지감을 측정해보고, 그에 따라 개인의 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김민정, 2000).

그런데 이러한 복지감은 기존의 객관적 통계자료로는 제대로 측정해 내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개인의 환경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복지감·안녕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환경에 대한 측정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복지감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복지서비스의 각 대상에 따라 심리적 차원의 복지감을 측정하고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김민정, 2000).

심리적 복지감은 객관적 개념 혹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가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적 경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라 하였으며, Ross, Mirowsly와 Goldsteen(1990)은 심리적 복지감을 주관적인 차원에서 '삶에 대한 기쁘고,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 유쾌하고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와 Veenhoven(1991)은 개인의 생활전반 또는 인생전반에 대해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를 말하며, 개인

의 실제수행하고 있는 역할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내면적 상태로 복지감을 정의하고 있다. 복지감은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공언하는 행복(avowed happiness)'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 인생전반에 혹은 인생전체에 대한 행복·만족도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영혜, 2000; 변은주, 2000; 조금숙, 2000; 최진원, 2001).

실제로 초기의 연구들(Berry & Williams, 1987;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에서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생활의 질이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ckerman과 Paolucci(1983)의 연구에서는 자원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들이 인간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 관련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연구대상별로 보면 기혼여성(장혜경, 김영란, 2000; 김순기, 2001; 지명원, 2001), 기혼취업 여성(정유진, 2004), 남성(서정아, 1998; 이형실, 2001) 등이 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복지와 학교생활(최은주, 2001), 정서표현(유주현, 2001), 방과 후 보호형태(장영은, 1998),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오선영, 2003)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정신건강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우울증과 정서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Benazzi, 2002; Cleary, 1987; Hyde & Frost, 1993; Pearlin, 1989)이 있으며, 김경민과 한경혜(2004)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복지감 수준, 특히 목적감과 성숙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심리적 복지감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Hilleras, Aguerro, & Winblad, 2001; Ryff, 1989; Wangner, Lloyd, & Gil, 2002)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성별에 따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도미향, 2006)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아버지역할 아동만족감, 어머니 취업활동 만족감, 아동 정서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경미(1995)의 연구에서는 취업모 자녀 중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로 잘 적응하고, 더 독립적이며,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볼 때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복지감은 성차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아동의 성별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복지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소수의 선행결과만으로는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는 접근은 아동이 이미 긍정적이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심리적 복지라고 할 경우 사후 치료적인 접근에 머물게 되며, 성장 발달하는 존재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자녀양육방식을 구성하는 차원을 개별적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연구 경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통제 차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로 구분된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Baumrind, 1967; Schaefer, 1965),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부모 통제 유형이 혼용되었고, 그 결과 부모의 통제가 아동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이에 대해 1990년대에 들어서야 문제 제기가 되었고 부모의 통제를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Barber, 1996).

Barber(1996)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아동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동통제와는 구분되며,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부모의 통제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들은 심리통제를 행동통제와는 구분되는 변수로서 다루고 있으며, 심리통제가 행동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약물사용, 비행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그러한 행동 문제가 없는 아동의 어머니보다 심리통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희화, 2003;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Herman, Dornbusch, Herron, & Herting, 1997), 부모의 심리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시험 불안 등의 불안증상이나 우울증상 및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도현심, 1996; 이민식, 1999; Sigueland, Kendall, & Steinberg,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차 독립의 욕구가 발현되는 아동기 후기에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독립과 의존이라는 갈등상황을 초래하여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Steinberg, 2002).

한편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발달이나 행동문제 간 관계에 있어 아동의 성차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최근까지 이루어진 극소수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Herman *et al.*, 1997)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심리통제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Pettit & Laird, 2002)가 있는 정도다. 이에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발달 및 행동문제에 있어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생각된다.

유아기 및 아동기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하며, 가정 환경변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지대하다. 즉, 아동의 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해 나간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적인가, 어떻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가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도미향, 2005).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로서 대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애정을 받으면 자녀의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많이 당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양육된 자녀는 혼란, 불안감, 외로움 같은 정서적 고통과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이영순, 김미라, 2000). 아동양육에 있어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든 아동에게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Belsky, 1997)에 비추어볼 때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도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이나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갖는 기대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이나 양육행동은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Frost(1990)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엄격함에 대한 여아의 평가와 아동의 완벽주의(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부모의 높은 기대, 부모의 비난 수준차원) 간에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남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은 그에 속한 개인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 사업이란,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갖고 있고, 도전과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Defrain, 2002)는 건강가족적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보려 한다면 문제만을 보게 되고, 가족의 강점을 보려 한다면, 강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은 개발되어질 수 있고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할 때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다.

특히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발달단계상 사춘기로의 진입시기인 청소년기와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갖게 되고 반항적 태도를 보이며 부모로부터는 점차 독립적이 되어간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적이 된다고 하여 가족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귀중한 자원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나 역기능적인 경우(가정폭력, 만성불안, 스트레스, 그릇된 가족의 식이나 가치관의 전수)는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일으켜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울,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나타낸다(한영숙, 2006).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의 심리발달,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건강한 가족의 자녀의 심리발달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바 있다. 가족의 건강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양순미, 유영주, 2003; 윤세은, 2000)에 의하면,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고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족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건강한 가족인 경우 가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다면 부모의 심리체계가 긍정적으로 발달될 것이고 가족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소원한 관계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스트레

스와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하고 결국 아동의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건강성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세은, 2000)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송경희(200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여 가족의 건강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임정아와 이인수(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에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의 차이가 어떠한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가족의 건강성과 자녀의 심리 및 발달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조사대상 또한 주로 청소년기 자녀에 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의 욕구가 발현되는 아동기 후기에 아동의 중요한 환경이라 볼 수 있는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으로 설정하고 아동의 성에 따라 지각 정도가 다른지 고찰하며, 이들 변인이 남아와 여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등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로 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은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며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시작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정윤주, 2004). 따라서 이 때 어머니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개입하여 통제하려 하는 것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아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529)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아	261(49.3)
	여아	268(50.7)
가족 구성	함께살고있음	489(92.4)
	따로살고있음	40(7.6)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237(44.8)
	대졸	201(38.0)
	대학원졸 이상	42(7.9)
	무응답	49(9.3)
어머니 직업	전문직	25(4.7)
	사무직	104(19.7)
	자영업	85(16.1)
	생산노동직	8(1.5)
	판매서비스직	46(8.7)
	시간제	25(4.7)
	주부	184(34.8)
	기타	50(9.5)
무응답	4(0.4)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24(4.5)
	35세 이상~40세 미만	161(30.6)
	40세 이상~45세 미만	262(49.5)
	45세 이상~50세 미만	71(13.4)
	50세 이상	8(1.5)
무응답	3(0.6)	

6학년)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동 564명이다. 설문지를 작성한 초등학교생 564명 중 문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한 35명을 제외하고 총 529명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261명(49.3%), 여아가 268명(50.7%)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상~45세 미만이 262명(49.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237명(44.8%), 대졸 201명(38.0%), 대학원졸 이상 42명(7.9%)의 순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전업주부가 184명(34.8%), 사무직 104명(19.7%), 자영업 85명(16.1%)의 순이었다.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489명(92.4%)이며, 부모의 별거, 이혼은 40명(7.6%)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두 아동이 지각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1)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어머니가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어머니가 아

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심리통제 개념의 구성요소인 자기표현제한, 감정 불안정, 죄책감 유발 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을 막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곤 한다.', '우리 어머니는 가족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하신다.' 등이다.

### 2)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가족에서 나타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참고하여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개 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개 문항), 가족원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6 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9개 문항)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등이다.

### 3)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 내적인 평가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긍정적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제시한 최진원(200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 수행이나 역할과는 별개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써 주관적 평가의 긍정적 측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N = 529)

척도	문항수	신뢰도
심리통제	16	.79
가족의 건강성	34	.92
가족원간의 유대	10	.8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	.76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	.7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9	.79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80	.96
유능감	30	.90
지지감	20	.93
향상감	30	.92

면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였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유능감(30 문항), 지지감(20 문항), 향상감(30 문항)을 측정하는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내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이해해준다.', '나는 쉽게 일상의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등이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 1) 연구절차

설문지의 난이도 및 이해도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부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초등학교에는 사전에 자료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후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고 연구자가 수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564부 중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하고 529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간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alpha$ 를 산출

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의 복지감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문제 별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하여 남아 집단( $M = 2.09$ )과 여아 집단( $M = 2.04$ )의 지각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4개 하위요인들인 '가족원간의 유대' ( $t = -.305, p < .05$ ),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 $t = .273, p <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t = -1.12, p > .05$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 $t = .162, p >$

<표 3>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529)

변인	통계치	응답가능한 점수범위	M	SD
가족의 건강성	심리통제	1~4	2.06	.45
	가족원간의 유대	1~4	3.02	.5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4	2.74	.5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1~4	2.64	.52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4	2.80	.52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전체	1~4	2.81	.45
	유능감	1~4	3.02	.42
	지지감	1~4	2.82	.56
	향상감	1~4	3.25	.44
	전체	1~4	3.06	.40

〈표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N = 529)

변인	남아(n = 261)		여아(n = 268)		t	
	M	SD	M	SD		
심리통제	2.09	.44	2.04	.45	1.35	
가족의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01	.55	3.02	.48	-.30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71	.52	2.77	.51	-1.1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65	.55	2.64	.50	.162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2.80	.50	2.79	.42	.273*
전체	2.80	.48	2.81	.42	-.342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유능감	3.00	.45	3.04	.38	-1.25*
	지지감	2.72	.60	2.92	.51	-4.10*
	향상감	3.21	.47	3.29	.41	-1.88*
	전체	3.01	.43	3.10	.36	-2.67*

\*p < .05.

〈표 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상관관계

(N = 529)

	1	2	3	4	5	6	7	8	9	10
1. 심리통제	1									
2. 가족원간의 유대	-.28**	1								
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3**	.73**	1							
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1**	.77**	.68**	1						
5.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21**	.70**	.63**	.67**	1					
6. 가족의 건강성	-.27**	.92**	.87**	.90**	.82**	1				
7. 유능감	-.08	.51**	.47**	.52**	.48**	.56**	1			
8. 지지감	-.14**	.49**	.48**	.47**	.45**	.54**	.60**	1		
9. 향상감	-.09*	.50**	.47**	.45**	.48**	.53**	.71**	.58**	1	
10.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12**	.58**	.54**	.55**	.54**	.63**	.89**	.82**	.89**	1

\*p < .05. \*\*p < .01.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건강성 전체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342, p > .05$ ).

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 = -.247, p < .05$ ). 유능감에서 여아( $M = 3.04, SD = .38$ )가 남아( $M = 3.00, SD = .45$ )보다 더 높았으며, 지지감에서도 여아( $M = 2.92, SD = .51$ )가 남아( $M = 2.72, SD = .60$ )보다 더 높았으며, 향상감에서도 여아( $M = 3.29, SD = .41$ )가 남아( $M = 3.21, SD = .47$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 복지감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가족의 건강성 전체와 부적 상관( $r$

$= -.27, p < .01$ )을 나타냈고, 가족의 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전체와도 부적 상관( $r = -.12, p < .01$ )을 나타냈다.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지각할수록 가족의 건강성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 전체 또한 가족의 건강성과 정적 상관( $r = .63, p < .01$ )을 나타냈고, 가족의 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능감도 가족의 건강성과 정적 상관( $r = .56, p < .01$ )을 보였고, 가족의 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지감도 가족의 건강성과 정적 상관( $r = .56, p < .01$ )을 보였고 가족의 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향상감도 가족의 건강성과 정적 상관( $r = .53, p < .01$ )을 보였고 가족의 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족원들간의 유대가 강할수록, 가족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족원들간의 가치를 많이 공유할수록, 그리고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복지감인 유능감, 지지감, 향상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529)

종속변수	구분	독립변수	$\beta$	$R^2$	F
유능감	남(261)	심리통제	.05	.362	30.55***
		가족원간의 유대	.1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9*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1*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4		
	여(268)	심리통제	.10	.272	19.54***
		가족원간의 유대	.19*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0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2**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8*		
지지감	남(261)	심리통제	-.08	.380	31.20***
		가족원간의 유대	.0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0*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5		
	여(268)	심리통제	.10	.225	15.24***
		가족원간의 유대	.2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6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5		
향상감	남(261)	심리통제	.00	.369	29.80***
		가족원간의 유대	.1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1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1*		
	여(268)	심리통제	.11	.227	15.38***
		가족원간의 유대	.27*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9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09		

\* $p < .05$ , \*\* $p < .01$ , \*\*\* $p < .001$ .

3.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1~3.5)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beta = .19, p < .05$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beta = .21, p < .05$ )가 유능감에 유의한 변인이며, 36.2%로 설명해주고 여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beta = .22, p < .01$ ), 가족원간의 유대( $\beta = .19, p < .05$ ),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beta = .18, p < .05$ )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2%이다.

다음으로 지지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beta = .27, p < .05$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beta = .20, p < .05$ )가 지지감에 유의한 변인이며, 38.0%로 설명해주고 여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유대( $\beta = .25, p < .05$ )만이 지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5%이다.

마지막으로 향상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beta = .21, p < .05$ ),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beta = .31, p < .05$ )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9%이며, 여아의 경우 가족원간의 유대( $\beta = .27, p < .05$ )만이 향상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7%이다.

전체적으로 가족의 건강성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문제 별로 얻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를 조사한 정윤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남녀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 지각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 친밀도, 개인적 이슈에 대한 개방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Youniss & Smollar, 1985)와 관련지어 볼 때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지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Mantzicopoulos & Oh-Hwang, 1998)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를 볼 때 이것이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데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소수의 선행 연구 결과만으로는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선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심리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arber, 1996; Best, Hauser, & Allen, 1997),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Bronstein, 1994), 남아와 여아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Kuczynski & Kochanska, 1995; Mantzicopoulos & Oh-Hwang, 1998)가 모두 있어 일관된 경향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은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나 대체로 건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가장 높게,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원간의 가치체계의 공유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가족원간의 관심사와 취미 등이 다르고 가족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 드물고, 가족만의 전통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양순미, 유영주, 2003; 어은주, 유영주, 1997; 최정혜, 2004)에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의식은 높고 가치관과 목표의 공유나 종교 도덕적 태도의 점수는 낮은 양상을 보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총체적 가족의 건강성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정아와 이인수(2006)의 연구에서도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원간의 유대,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가치체계 공유에 대해 남아와 여아간의 지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윤세은, 2000)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한다는 연구(송경희, 2004)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해볼 때 조사대상과 연령집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능감, 지지감, 향상감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각 하위영역을 정의하면 유능감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하며, 지지감은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받는다는 개인 내적인 느낌을 말한다. 향상감은 성장 발달하는 아동기 특성을 고려해 최적기능을 위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향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능감으로 일관되어오던 종래의 결과와 상응하는 측면으로 유능감 차원과 고립감이나 외로움, 우울에 상응하는 측면인 지지감과 욕구의 충족이나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향상감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유능감의 중요도 인식 수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남기, 박정희, 1995), 일반적으로 유능감에 대한 성차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즉, 유능감은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유능감에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달리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서미정, 1999). 옥경희, 김미혜와 천희영(2001)의 연구에서 여아의 불안, 우울같은 부정적 정서수준이 남아의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미향(2005)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 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체적인 심리적 복지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적 영역에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가족의 건강성과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예측한대로 어머니가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할 때 불평등한 부모-자녀관계는 계속되고,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게 되므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개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심리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하며 지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행동통제와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영역에서 통제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런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Barber, 199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족에서 자란 아동이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아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건강성이 자녀의 심리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양순미, 유영주, 2003; 윤세은, 2000)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영향력이 없고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통제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일지라도 다른 가족이나 또래의 지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애경, 2002)와 같이 또래집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수용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건강성 하위 요인별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과 가치체계 공유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여아인 경우 가족원의 유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는 남아에 비해 보다 관계지향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서사회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정옥분, 2003, p. 516).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삶은 학교라는 공식적 체계로의 진입으로 인해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어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이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전히 아동발달에 있어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기능과 자존감이 후기 청소년의 우울감에 유의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한 연구(박선영, 도현심, 1998)는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때 아동 스스로 가족의 건강성을 가지게 되며 심리적 복지감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고찰하였다. 한 대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을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만을 다루고 아버지의 심리통제에 대한 영향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성차는 자녀의 성별 뿐 아니라,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주장(Youniss & Smollar, 1985)이 있고,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들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다루어보는 것도 이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하여 가족의 건강성과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후기인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아동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통제차원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심리통제 영역과 인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에 필수적인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경민, 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4**(3), 211-230.
- 김민정(1996).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2000). 한국청소년 문화 복지지표 체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 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영혜(2000).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아(1997). 부모와 자녀간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도미향(2005).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미향(2006).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77-92.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백경숙, 변미희(2002). 보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유아보육학**, 31, 135-151.
- 변은주(2000).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미결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5. 1. 1.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도와드립니다-. 2004년 12. 30. 보도자료. www. mohw. go. kr.
- 서미정(1999).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경희(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양순미,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오선영(2003). 방과 후 보호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육경희, 김미해,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 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3.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유주현(20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연정, 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이남기, 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 김영희, 윤재정, 이용복, 최진원, 박은희(1999). **현대 영유아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영순, 김미라(2000).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춘해대논문집**, 12, 145-165.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실(200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2.
- 임정아, 이인수(2006).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장경미(1995). 취업모의 취업경험과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은(1998).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경, 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9, 137-159.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옥분(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유진(2004). 기혼취업여성의 가정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운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운주(2005).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컴퓨터 게임 몰입. **대한가정학회지**, 43(11), 197-210.
- 조금숙(2000). 청소년의 포래지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명원(2001). 이혼여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주(2001).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 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문화지표체계개선**.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례(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37-51.
- Ackerman, N., & Paolucci, B.(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 97-123).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 Olsen, J. A.(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87-315.
-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elsky, J.(1997). Theory testing, effect-size evaluation, and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The case of mothering and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98-600.
- Benazzi, F.(2002). Depressive mixed state frequency: Age / sex effect. *Psychiatry & Clinical Neurosciences*, 56(5), 537-543.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est, K. M., Hauser, S. T., & Allen, J. P.(1997). Predicting young adult competencies: Adolescent era parent and individua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90-112.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stein, P.(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441-454.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leary, P. D.(1987). Gender differences in stress-related disorders. In R. C. Barnett, L. Biener & G. K. Baruch(Eds.), *Gender and Stress*(pp. 39-72). New York: Free Press.
- Defrain, J.(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Eccles, J. S., Early, E., Frasier, K., Belansky, E., & McCarthy, K.(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63-286.
- Frost, R. O., & Marten, P.(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6), 559-572.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2-33.
- Gray, M. R., &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 -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erman, M. R., Dornbusch, S. M., Herron, M. C., & Herting, J. R.(1997). The influence of family regulation, connection, and psychological autonomy on six meas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34-67.
- Hilleras, P. K., Aguerro-Torres, H., & Winblad, B.(2001).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the elderl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4*, 361-365.
- Hyde, J. S., & Frost, L. A.(1993). *Meta-Analysis in the Psychology of Women*. Westport: Greenwood.
- Kuczynski, L., & Kochanska, G.(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Mantzicopoulos, P. Y., & Oh-Hwang, Y.(1998).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to parenting quality and intellectual ability for American and Korean adolesc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3*, 195-206.
- Morris, A.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Silk, J., & Essex, M.(2002). Measuring children's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control: Developmental and conceptual consideration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25-160).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earlin, L. I.(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 Pettit, G. S., & Laird, R. D.(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pp. 97-123).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oss, C. E., Mirowsly, J., & Gold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i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aefer, E. S.(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iqueland, L., Kendall, P. C., & Steinberg, L.(1996). Anxiety in children: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and observed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224-237.
- Smetana, J. G., & Daddis, C.(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 563-580.

Steinberg, L.(2002). *Adolescence*(6th ed.). Boston: McGraw-Hill.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Wagner, E. F., Lloyd, D. A., & Gil, A. G.(2002). Racial/ethnic and sex differences in the incidences and onset age of DSM-IV alcohol use disorder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5), 609-619.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Press.

---

접 수 일 : 2008년 6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29일